

#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이 직접 정책 제안

전북자치경찰위, 치안정책 제안 101건 선택... 키보드 순찰대·스토킹 범죄 대책·1인가구 안전대책·어린이 안심 보행로 설치 등 다양  
이달 중 실무부서·전문가 심사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참신한 제안 13건 선정... 최우수상 100만원 등 총 400만원 상금 수여 예정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한 달동안 '집복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를 통해 101건의 도민 제안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안전 스팟존 설치, 드론·집복 키보드 순찰대 운영 등 범죄 예방 시설개선과 주민 참여 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는 스

토킹, 불법 카메라, 여성 안심 숙박업 등 여성범죄 예방 대책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전담 경찰관 제도 운영, 사회적 회복제도 실시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 시책이 많았다. 또한 교통안전 분야는 청각장애인 운전 차량 스티커 보급, 말하는 신호등, 어린이 안심 보행로 설치, 고령자 안전증진 종합계획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책이 눈길을 끌었다.

위원회는 7월 중 실무부서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제안 13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최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책 공모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자치경찰에 바라는 정

채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참신한 제안을 선정해 실무부서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북형 치안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치경찰 정책 공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시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경수 기자

## 행정기관 민원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CCTV 설치·안전요원 배치·취약계층 전용창구 등 개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가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민원취약계층 지원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

치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의 경우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 사안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수인·반복민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도·감독기관의 의견 제시 절차 마련 등 민원인 권리 구제

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시간(근무시간) 내 접수, 매크로 민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 산동성에 전하는 '2023 아태마스터스'

중국 산동성 라디오방송사... 한 달 동안 홍보방송 송출

전라북도중국사무소는 2023년 5월 전라북도에서 펼쳐지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 라디오 방송국에 한 달간 홍보방송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산동성은 인구 1억 명이 넘고 전라북도 2006년에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도시이다. 또한, 산동성 라디오 방송국은 25~45세의 활동적 주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산동성 최고 인기 채널로 알려졌다.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는 이번 홍보 방송 문구는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현지 방송국의 간판인 홍진민(宋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중국사무소는 도의 국제행사, 문화 관광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 내 유명 관광박람회 참가는 물론 영화관 내 전라북도 지정관 운영, '중국통 책자 발간', 'SNS 홍보단과 웨이보·틱톡 운영', '새만금 잠머리 홍보용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자체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정순택 중국사무소장은 "7월 한 달간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중국에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홍보함과 더불어, 산동성에 거주하는 재중국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라북도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제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아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다"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

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경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위 사무실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복 청주 출신인 윤 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청주형 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여기서 다시 한 달 만에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셈이 된다. /뉴스

## 전북 1000리길 알릴 '초록원정대' 가 뜬다!

10월까지 14개 노선 대상, 친환경 걷기 체험과 홍보 수행... 전북 1000리길 인지도 제고·탐방 활성화 등에 큰 역할 기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전북 1000리길 초록원정대가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일 전주 한옥마을 돌레길 입원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전북 1000리길 초록원정대' 발대식이 열렸다. 전북도는 160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총 20명의 1기 원정대를 선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진정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생태·힐링 탐방객 방문 유도를 위한 전북 1000리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록원정대는 오는 10월까지 주 1회 각 시·군별 대표 노선 1개를 대상으로 총 14회의 초록원정대 활동에 나선다. 활동 내용으로는 걷기와 노선 주변의 쓰레기 줍기를 병행하는 친환경 걷기 체험 등으로 선도적인 환



경보전 활동과 전북 1000리길 탐방 홍보, 탐방객들의 자연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초록원정대 활동은 전북 1000리길 인지도 제고와 걷기 탐방객 방문 유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체험 활동에는 각

시·군별 1000리길 해설사들이 동참하여 생태·인문 자원 등을 설명해 향후 초록원정대가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록원정대 활동이 종료되는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초록원정대 활동 영상 등을 제작해 전북

1000리길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태·힐링 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신규 탐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 역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재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했지만,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출국 후 가족의 이사나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다른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뉴스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2-9호

### 분묘개장공고

화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구역 내 분묘에 대해 당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원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완주군에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분묘 위치	분묘기수	비고
전라북도 완주군 화일리 선50-4번지 일원	분묘 1기	무연묘로 추정

- 개장사유: 화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편입
- 개장 후 안치장소: 완주군 공설묘지 내 봉안당
-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2. 6. 29 ~ 2022. 9. 27)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 신고처: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 063-290-3386)
- 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사실향안서 등)를 구비해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개장공고 후 사업위치(장소)내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완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